메트로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제2537호 www.metrobusan.co.kr

메트로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제2597호 www.metrobusan.co.kr

'입' 꽉다문 속터지는 대선

열망이 없는 이미지 대결만 몰두 대통령 후보 3인이 28일 주말 표심잡기에 나선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위드베이비 유모차걷기대회에 참석해 한 어린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다 (왼쪽)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한 어린이에게 브라우니 인형과 뽀뽀 선물을 받고 있다 (가운데)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서울광장 '2012 서울 북페스티벌'에 참석,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뉴시스

빅3 정책토론 대결 한번도 않고 네거티브만 난무
선관위 의무토론 달랑 3번뿐…결국 깜깜이 투표

다음 달 6일 대선 투표를 앞둔 미국 재선을 노리는 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와 밋 롬니 공화당 후보는 이달 들어 1m 간격으로 마주하고 세 차례 불꽃 튀는 설전을 벌였다

토론은 전파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 전역의 화두가 됐다 토론이 끝난 이후 주요 언론들은 양측의 논거에 대한 검증과 해설이 뒤따랐고 유권자들은 이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토론을 거듭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선에서는 이런 '활기찬' 장면을 보기 어려울 듯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과거사 인식 정수장학회 문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북방한계선(NLL) 관련 입장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이미지 추어리즘 등에 대한 정치 공세는 하루도 빠짐없다 그러나 정작 유권자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거나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정책 검증에 이렇다 할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내선이 51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지만 정작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차별점이 있는지 정책적 지향점을 어떻게 실현해 낼지 꼼꼼히 따져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유권자는 답답하다 자신을 부동층이라고 밝힌 유권자 정석윤(41)씨는 "후보들은 이미지 제고와 예상득표수 셈법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면서 "각 진영에서 던지기는 하는데 받는 과정이 없고 원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등 이슈 선점화를 위해 외치는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는 알겠는데 '언제' '어떻게' 얼마나 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고개를 기로저었다

3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제18대 대선은 투표일을 불과 3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대권 주자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토론 제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뒤늦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세 후보가 만나자는 제안을 내놓으며 줄곧 '빅3'의 토론을 요구해왔다

문 후보 측은 토론이든 단순한 만남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박 후보 측은 후보자 간 형평성 등의 문제를 들어 "단일화 이후나 완주를 약속해야 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선거일 120일 전부터 입후보 예정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 등의 형식으로 정당과 후보의 견해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정된 만남은 최근 확정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토론 일정상 투표일에 임박한 12월 4일, 10일, 16일 세 차례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토론이다 의무 토론의 시점도 문제지만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에 대해서도 우려가 크다

의석수 5석 이상의 정당 추천 후보가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 여부에 따라 토론회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까지 4~5인이 함께해야 한다

토론 1회당 2시간가량의 토론시간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고 사회자와 패널의 발언 시간을 제외하면 후보자당 20여 분가량을 정책 설명에 할애할 수 있다 방대한 국정운영 방향과 철학 정책목표와 실현 방도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될지 의문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후보들이 정치 공방에만 매몰돼 정책 대결을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제도적으로라도 TV토론회에서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steven@metroseoul.co.kr

라니아·현아·원더걸스 "싸이오빠 뒤이어 미국시장 노린다"

싸이의 추진을 등에 업고 국제 여가수 가 뭅의 본고장을 연이어 강타할 전망이다

신예 그룹 라니아는 최근 유니버설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인 엠파이어 레코드와 음반 유통 계약을, 파이어웍스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미국 활동을 시작한다 엠파이어 레코드는 미국의 유명 힙합 R&B 전문 레이블이며, 파이어웍스는 팝 스타 크리스 브라운의 매니저인 마이크 윌리엄스가 대표를 맡은 매니지먼트사다

엠파이어 레코드의 변호사인 브렛 루이스는 계약 체결 후 "'강남스타일'의 한국 걸그룹이 전 세계를 누비는 그룹으로 성장하는 것을 함께 지켜보게 돼 기쁘다"며 싸이의 성공에 빗대 라니아의 활약을 예상했다

라니아는 지난해 4월 데뷔 당시부터 마이클 잭슨의 프로듀서였던 테디 라일리와 작업하며 국내외 음반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이기도 한 현아를 바라보는 세계 음악 시장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다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는 이번 주 꼭 봐야 할 뮤직비디오로 현아의 화산곡 '아이스크림' 뮤직비디오를 소개했다

원더걸스의 활동도 분주하다 빌보드는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같은 한국 걸그룹 원더걸스의 미국 내 라디오 순위 상승을 돕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여성 그룹의 미국 내 인기를 예상했다 원더걸스는 25일 미국 뉴욕 UN본부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2 UN 데이 콘서트에 스티비 원더, 스팅 등 사이언등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한 음반 기획사 관계자는 "싸이의 성공 이후 K-팝에 대한 미국 음악 종사자들의 관심이 급증했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K-팝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놀랐다"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

유치원비 허리 휘는 젊은부모

사립 月44만원…대학등록금과 맞먹어

전국 사립 유치원의 연 교육비가 대학 등록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e-childschoolinfo.mest.go.kr)에 공시된 전국 8370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의 지난달과 이번 달 경비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월 교육비 12개월치와 입학경비를 더한 연간 사립 유치원비는 만 3세가 약 529만9000원, 만 4세 547만7000원, 만 5세 543만7000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는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 수준"이라며 "올해 2월 발표된 대학들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70만6000원으로 국공립대가 415만원, 사립대가 737만3000원이었다"고 비교했다.

경기도 용인의 한 학부모는 "영어 유치원의 경우 간식비, 교통비를 포함해 한 달에 80만~100만원 정도를 교육비로 낸다"고 말했다.

◆ 사립 유치원비 서울 최고 제주 최저

교육비는 만 3세의 경우 국공립이 월평균 7만1810원, 사립이 42만8793원으로 사립이 국공립보다 5.9배나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만 4세는 국공립 10만2728원, 사립 44만3252원이었으며 만 5세 이상은 국공립 8만8637원, 사립 44만395원으로 나타났다.

교육비는 수업료, 간식비 등 교육과정 교육비와 방과후과정 교육비가 포함된 수치로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학부모가 순수 부담하는 원아 1인당 교육비다.

시도교육청별로는 만 3세 기준으로 국공립은 전북이 15만9385원으로 최고가였다. 반면 경기는 4만618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같은 연령 사립은 서울이 50만344원으로 제일 고가였고 대부분 40만원을 넘은 가운데 제주 지역이 30만5469원으로 최저였다.

/양보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가을이 간다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28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시민들이 낙엽을 밟으며 걷고 있다. /뉴시스

수입 식기세척기 성능 떨어지는데 가격은 3배 비싸

국산보다 3배나 비싼 외국브랜드 식기 세척기의 실제 성능은 평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동양매직, LG전자, 밀레코리아, 화인어프라이언스 등 식기세척기 4개 제품을 시험 평가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60만원대 동양매직의 DWA-3320D 제품이 가격 대비 기능이 제일 뛰어났다.

180만원대인 독일산 밀레코리아 G5100SC 제품과 200만원에 가까운 독일산 화인어프라이언스 SN25E230EA 제품의 세척력은 동양매직보다 떨어졌고 동결방지 기능도 없었다. /전효순기자 hisoon@

노후 불안한 한국 연금체계 18개국 중 16위

우리나라의 연금시스템이 세계 주요 18개국 중 중국과 함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저소득층에 대한 최저연금 지급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1위는 덴마크였다.

28일 호주금융연구센터와 글로벌 컨설팅 회사 머서는 '멜버른-머서 글로벌 연금지수(MMGPI)'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한국은 평가 대상 18개국 중 종합지수 44.7점(100점 만점)으로 16위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적정성·지속가능성·완전성 평가에서 각각 45.1점, 42.3점, 47.5점의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완전성 평가는 평가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김민준기자

독도 2개 봉우리 공식이름 생겼다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독도의 동도(98.6m) 봉우리를 '우산봉'으로, 서도(168.5m) 봉우리를 '대한봉'으로 각각 공식화했다.

28일 국토정보원은 국토의 영토주권 행사와 무분별한 지명 사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하고 29일부터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보원은 "우산봉은 독도가 우산도라고 불려진 것에서 착안했으며 대한봉은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상징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불였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마련된 독도 지명정비계획에 따라 경북도, 울릉군과 공동으로 지명 정비작업을 추진했으며 지방지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명위원회에서 독도의 지명 등을 확정했다. /배동호기자

문·안 "투표시간 연장을"

"오후 8~9시까지 늘려야"…박근혜 향해 "입장 밝혀라" 협공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8일 투표 마감시간 연장을 놓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협공했다.

문 후보는 이날 대전·세종·충남과 전북,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잇따라 참석해 "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박 후보는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먹고살기 다급해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며 "저녁 9시까지는 투표시간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도 이날 서울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열린 '투표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식'에서 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그는 "1971년부터 40년간 투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유지돼 왔다"며 "국민은 21세기를 사는데 투표시간은 70년대에 멈춰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선에서 모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얘기하는데 이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이 바로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다. 그런 분들 가운데 일하는 시간 때문에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시간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인 새누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박 후보는 100%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는데 100% 유권자의 투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누구보다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 김영경 공동선대위원장은 "안 후보 측의 입장에 적극 환영한다"며 "양 캠프에서 공동 논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호응했다.

/배동호기자 eleven@metroseoul.co.kr

"김지태씨 재산헌납은 강압"

부신고법도 인정 판결

부산고등법원이 고 김지태씨의 재산헌납 강압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놨다.

부산고법 민사5부는 김씨 유족이 정부와 부산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군사혁명정부의 다소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중앙정보부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지 않으면 김씨나 가족 등의 신체와 재산에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했다"며 "김씨의 증여 의사표시는 대한민국 측의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강박으로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헌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증여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결론과 유사한 것으로 김씨 유족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배동호기자

이사 안가는 가을

9월 인구이동 50만5000명…25년만에 최저

지난달 이사를 한 사람이 2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집 거래가 크게 줄어든 탓이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이동자 수는 5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4.9%(8만9000명) 줄었다. 7개월 연속 감소세이자 1987년 1월 47만 명 이후 약 25년 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1월부터 줄어들고 있는 주택매매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량은 3만98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3%나 감소했다"며 "9·10 대책을 담은 취득세 감면 조치가 9월 24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책 발표 이후 시행 시기까지 주택거래를 늦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1.00%로 지난해 9월에 비해 0.18%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 이동을 살펴보면 ▲경기 5340명 ▲인천 2032명 ▲세종 1391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입했고, ▲서울 -8190명 ▲부산 -1465명 ▲대구 -775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 8월 혼인건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령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혼인건수는 2만4400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00건(9.3%) 감소했다. 통계청 측은 "결혼 적령기인 30~34세 남성과 27~31세 여성의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유난히 기온이 높았던 날씨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혼건수는 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보다 3.1%(300건) 증가했다. 이혼건수는 대구·광주·대전 등 5개 시도에서 늘어났고 부산·충북·전북 등 3개 시도에서 줄었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686> 글·그림 백상철

아이 잠깐 맡기는 시간제 보육 확대

관공서 방문 등을 위해 잠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센터가 늘어난다.

서울시는 시간제 보육 인프라 확충 내용을 담은 '서울시 시설 가정 보육 영딥 지원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5개 영유아플라자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간제 보육이 내년 20개 시설로 확대된다.

동주민센터 등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시간제 보육 시설도 내년 5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75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은 "어린이 시설을 이용한 학부모 500명에게 육아 시설에 대해 최근 설문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필요할 때 잠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증설이 26.8%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장윤희기자 uhyun@

'아가수달' 시장님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도서관옛 서울시청) 어린도서실에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저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먹이를 찾으러 가는 아기수달' 이란 동화책을 읽어주며 수달 흉내를 내 참석자들이 크게 웃고 있다. /뉴시스

지리산 단풍 절정 27일 오후 경남 함양군 마천면 백무동 지리산 계곡에 빨강·노랑 단풍이 울긋불긋 불 타듯이 물들었다. 불에 활활 타듯 붉은 빛이 내려앉은 백무동 계곡에 단풍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뉴시스

서부산권 연구개발특구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14.1㎢ 지정
4개 지구 구성… 매년 국비 100억 지원

서부산권인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지역의 연구개발 기반을 고도화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오후 제12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열고 '서부산권 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조성한 지역으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고시한다.

지난 2005년 9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된 이후 2011년 1월 광주와 대구 연구개발특구가 추가돼 현재 3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5월부터 8월 초까지 지식경제부·부산시·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특구 지정 TFT를 운영해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특화산업으로 하는 국제산업물류도시 중심의 '서부산권 연구개발특구 육성 계획'을 수립해 지난 8월 28일 지식경제부에 지정(안)을 제출했다.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구개발특구 지정(안)은 '세계 최고 R&D 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라는 비전 하에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을 중심으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서비스·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그린 해양기계 등 3개 특화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14.1㎢이며 대상지별 개발방향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R&D 융합지구(2.49㎢) ▲생산거점지구(2.06㎢) ▲사업화촉진지구(4.92㎢) ▲첨단복합지구(4.65㎢) 등 4개 지구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특구 발전과 수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수립하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지정지역을 추가하게 된다.

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매년 100억원 수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지원금은 특구 내 대학·연구소, 기업의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자금으로 지원된다.

/정수희기자 ksh@metrobusan.co.kr

독일 국립대 FAU 부산캠퍼스 1기생 전원 글로벌 인턴 취업

2011년 3월에 개교한 독일 국립대학 FAU 부산캠퍼스의 국내 재학생들이 독일 현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 향후 졸업생들의 취업이 용이하게 됐다.

올해 FAU 부산캠퍼스의 1기 졸업예정생 전원은 독일 글로벌 제약기업인 바이엘, 보링거잉겔하임, 식품회사인 쥬드주커와 자동기계설비회사인 크로네스에서 인턴연구원으로 선발됐다.

독일 국립대학 FAU 부산캠퍼스는 아시아에 진출한 첫 번째 독일대학교다. 독일 본교와 동일한 커리큘럼, 동일한 교수진 32명으로 구성돼 있고 전 과정이 영어로 진행된다. 졸업생들에게는 본교와 동일한 학위를 수여한다.

FAU 부산캠퍼스에 입학하는 모든 한국국적 학생은 첫 학기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봄학기 접수기간은 독일 본교와 동일하게 2013년 1월 15일까지 받고 있으며, 원서는 FAU 부산홈페이지(www.fau-busan.ac.kr) e-메일(studies@busan.fau.de)로 접수 받고 있다. /유재형기자

공동 馬케팅 파트너 모십니다

KRA 부산경남경마공원 기업 공개모집

KRA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경마공원과 함께 공동마케팅 활동을 펼칠 부산-경남지역 내 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기한은 별도로 없으며 모집내용은 교환광고·협찬 등 공동마케팅과 관련한 사업 전반이다. 주 협찬장소는 경마공원 전역으로 주차장·관람대지역·호스트리랜드 등이다.

부경경마공원은 일일 평균 입장객이 1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지역 내 인파가 몰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지역 기업들의 공동마케팅 장소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2004년 개장 후 처음으로 연간 누적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올해 역시 100만 명을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이미 경마공원과 함께 공동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웅진싱크빅은 지시 도서전집을 경마공원 북카페에 비치하고 있으며 바다는 지사 제품을 연중 지원하고 경마공원 내에 광고판을 부착했다.

또 트렉스타는 지시 타이틀경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KT프로농구단과 에어부산 역시 경마공원과 공동으로 마케팅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의 051)901-7510

<플리마켓+프리마켓>

'플프마켓' 반송동에 문열어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중고물품을 사고파는 벼룩시장인 '플리마켓'과 예술가 등이 시민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문화시장인 '프리마켓'을 합친 '플프마켓'이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서 문을 연다.

부산발전연구원 청년프론티어가 주관하는 반송플프마켓은 내달 4일 도시철도 4호선 영산대역 광장에서 첫 번째 마켓을 연 이후 매달 2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반송플프마켓은 지역주민이 진행하는 중고물품 시장과 이트체험 상담·문화이벤트 등 대학생 기획 존(ZONE)으로 운영된다.

이에 반송1동 주민센터는 오는 31일까지 반송플프마켓 기획단을 모집한다.

기획단은 프로그램 기획과 플프마켓 운영을 맡게 되며 부산지역 대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단체 지원도 가능하다.

문의 051)749-5943

방어 맛보러 다대포 오세요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방어를 맛볼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사하구는 다대어촌계 주최로 31일부터 이틀간 다대포 수협공판장(다대씨파크 인근) 일대에서 '제3회 다대포어항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축제 기간 동안 각종 횟거리를 1만 원에 판매하는 행사도 준비된다. 또 다음 날에는 다양한 횟거리를 저렴하게 판매하고, 맨손 싱싱활어 잡기 등의 체험행사가 열린다.

부산금정시니어클럽 10주년 문화활동

부산금정시니어클럽은 지난 2002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60세 이상 준 고령자 및 고령자 일자리창출 전문기관으로 첫발을 내딛은 지 10주년을 맞아 오는 31일 노인들의 화합, 일자리사업의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의 시간을 갖는다.

28일 시니어클럽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경상남도 수목원 관람을 시작으로 마산 가고파 국화축제 관람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부산금정시니어클럽은 현재 12개의 사업단과 사회적기업 해피도우미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500분의 노인들과 함께하고 있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당로 2가 1-141 142

TEL 02)721-9901 FAX 02)730-1554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권경택
편집국장	이승
광고제작 책임	김용철
서울광고문의	02)721-9951~3
부산광고문의	051)659-2100
독자센터	02)721-6982

[illegible]

전국 첫 선상투표 모의체험 연다

오늘 한국해양대 실습선서 행사 개최… 선원 이해와 참여 높이기 위한 차원

부산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사상 처음 도입되는 선상 부재자투표와 관련해 29일 오후 2시 한국해양대 실습선에서 전국 최초로 선상투표 모의체험 행사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선원들의 선상투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선거일에 외항선, 원양어선 등에 승선이 예정돼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해 투표소가 설치된 배 위에서 선상부재자신고서 작성 등 체험을 한다.

체험 장소인 한국해양대학교의 실습선인 '한바다호' 갑판 위에서 체험 참여자는 바다와 항구를 배경으로 실감나는 투표체험을 할 수 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게 되는 선상투표는 원양 어업선, 외항 여객선, 외항 화물선 및 해외취업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인 선박에 승선 중인 선원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외항선 등에 승선 중인 선원은 우선 부재자신고기간 중 팩스로 구·시·군의 장에게 부재자신고를 해야 하고 이후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관위로부터 전송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다시 팩스로 전송하면 된다.

팩스 전송한 투표지는 선원들의 투표비밀 보장을 위해 선관위에 설치된 특수 팩스기기(쉴드팩스)를 통해 자동으로 봉행돼 출력되며 선거일에 다른 투표지와 함께 개표하게 된다.

선상투표 대상이 되는 부산 선박 수는 1832개로 선상투표 대상 전국 선박 수(1906개)의 96.1%에 이르며 주민등록지가 부산인 선원 수는 6632명으로 전국 선상투표 대상 선원 수(1만2713명)의 52.2%에 해당한다.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체험행사가 선원들도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상 부재자신고는 다음 달 21일부터 25일까지며, 선상 부재자투표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김수득기자 ksm@metrobusan.co.kr

고은 작가와의 대화·독서 사업 체험부스 운영

책책폭폭 책 드림 콘서트

2012 국민 독서의 해를 맞아 책과 함께하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

부산시는 29일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고은 작가와의 대화를 비롯해 책 나눔, 축하공연, 독서관련 사업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치는 '책책폭폭 책 드림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이 함께 펼치는 이 행사는 전국에 퍼져 있는 철도처럼 책 읽는 분위기를 모든 지역에 확산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은 20세기 세계문학사상 최대의 기획'으로 꼽히는 '만인보(萬人譜)'의 작가이자 4번이나 노벨상 후보 물망에 오른 고은 시인이 초청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식전공연으로는 부산지역의 '엠브라더스 공연단', 오프닝 공연에는 '우창수 밴드', 축하공연에는 퓨전 국악그룹으로 유명한 '조아람'이 출연해 행사장을 한껏 달굴 예정이다.

한편 콘서트가 진행되는 동안 행사 부스에서는 시민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책 드림' 행사도 펼친다. 또 '행복한 책 나눔' 부스를 열고 지정도서를 가져오면 도서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

안중근 의거 103주년 손도장 찍기 26일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안중근 의사 의거 103주년 기념식에 참가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부산지부 회원들과 시민들이 손도장 찍기 행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달 1일부터 스포원 국화전

부산 도심 속에서 국화꽃이 만발한다.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은 가을을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수변공원 북측 일대에서 스포원 국화전시회를 개최, 1200여 점의 각종 국화를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전시회에는 각종 모형을 국화로 장식한 모형국화와 대국·소국 등이 이외에 전시된다.

스포원은 모형국화는 모두 7점으로 황소, 개선문, 석가탑, 자전거 등의 모습을 국화로 장식했다고 설명했다. 또 모형 국화 사이사이에 대국 265점, 소국 800점을 전시하고 현애국(懸崖菊) 60점도 함께 선보인다고 덧붙였다.

국화전시회는 11월 3일 개장식을 갖고 이날 오후 2시부터 호원시조학회 주관으로 시 낭송회도 갖는다. 문의 1577-0880

동래구 채용박람회 내일 열려

동래구는 30일 오후 2시 부산도시철도 4호선 수안역 대합실에서 지역의 40개 구인업체가 참가하는 '2012년 동래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행사는 미가마트 동래점, 동아티이어, 제일기계 등이 참가하며 동래구는 경력자 등을 비롯해 모두 50여 명의 신규 인력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가업체들은 이날 구청에서 혀 공된 업체별 부스에서 인력채용 담당자가 직접 구직자를 대상으로 즉석에서 이력서 접수와 함께 면접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날 부대행사로 취업 컨설팅 업체 전문가들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컨설팅 자문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 알아보기, 사진 찍어주기 등도 마련된다.

구직희망자는 행사 당일 신분증과 이력서 등을 지참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직종의 업체에 면접을 보면 된다.

美까지 간 日 말뚝테러

위안부기림비·뉴욕총영사관에도 '독도는 일본땅' 푯말 …미 경찰 수사 착수

일본 극우파의 독도 도발이 미국에서도 지속돼 한인사회는 물론 미국인들도 분노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27일(현지시간) 맨해튼에 있는 민원실 현관 앞에 '죽도(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하얀색 푯말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日本國竹島'(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의미)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가 발견된 장소와 같다. 문제는 이틀 만에 3건의 변란 사건이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발생했다는 점이다.

지난 26일 뉴저지주 펠리세이즈파크(팰팍)시의 위안부 기림비에서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여 있는 말뚝과 푯말이 발견됐고 같은 날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현관 앞에 '日本國竹島' 스티커가 놓여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뉴욕총영사관 민원실 앞 현관에 붙은 '일본 다케시마(日本國竹島)'라고 적힌 스티커 /Newsrals.com 제공

총영사관 관계자는 "민원실 현관 앞에서 발견된 푯말은 전날 팰팍 위안부 기림비 옆에서 말뚝과 함께 발견된 푯말과 같은 종류였다"며 "경찰이 자체 정보 부서를 통해 이들 사건의 배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뉴욕 한인들은 "일본 극우파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번 사건들을 일으켰다"며 "동포사회가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위안부 기림비가 있는 팰팍의 제임스 로툰도 시장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말뚝 사건은 미국 시민을 향한 '야만적 테러'"라며 "조사를 통해 인종이나 증오 관련 범죄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27일(현지시간) 초강력 허리케인 '샌디'가 접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메릴랜드주 오션시티의 한 주민이 소원도 위해 나무 판자를 덧대고 있다. /AP 뉴시스

'슈퍼 허리케인' 미 대선 강타

오바마·롬니 유세 전격 취소 … 동부 주민 대피령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 허리케인이 최대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속 12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샌디'가 30일 쯤 워싱턴, 뉴욕 일대를 강타할 것으로 알려지자 예정된 유세를 앞당겨 강행하거나 취소하는 등 대선 후보들의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버지니아주와 오는 30일 콜로라도주에서 실시할 예정이던 선거 유세를 취소한다고 28일 밝혔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유세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밋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도 28일 버지니아비치에서 열 예정이던 유세를 취소했다.

이미 카리브 해역을 통과하며 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샌디는 지난해 150억 달러(약 16조원)의 피해를 입힌 '아이린'보다 강력할 것으로 미 기상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해안 지역 주민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고, 뉴욕주와 코네티컷,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 버지니아주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국명기자

지수	
Nikkei (일본)	8933.06 (-122.14)
Hang Seng (홍콩)	21545.57 (-264.56)
Shanghai (중국)	2066.21 (-35.37)
Dow Jones (미국)	13107.21 (+3.53)

EXCHANGE RATE	
달러	1098.00
엔(100)	1372.84
유로	1420.26
위안	175.71

한국경제 '저성장 쇼크'

한은 "3분기 성장률 1.6%"…전경련 BSI 전망도 6개월째 100 밑돌아

우리나라의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저성장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악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또 우리 경제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함정의 덫에 걸려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 11월 종합경기 전망치는 92.5를 기록했다. 6개월 연속 기준선 100을 밑돈 수치다.

유럽발 경기침체의 종료 시점이 갈수록 늦춰지고 가계부채 상환 부담과 주택시장 부진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은 수출, 내수뿐만 아니라 투자, 고용, 재고, 채산성, 자금사정 등 조사대상 전 부문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내수(98.9)의 경우 국내수요 부진에 따른 매출 감소가 전망됐고, 수출(97.7) 역시 유럽, 중국 등 해외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면서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은 '2만 달러, 2%의 저성장 함정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고 진단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2만 달러 함정과 2%의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며 "앞으로도 3% 미만의 증가율이 계속된다면 3만 달러를 도달하는 데 10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10% 내외의 고속 성장을 보여온 중국이 올해는 7.5% 내외로 주춤하고 있다. 확실한 G2시대가 열리기 전 한국 경제가 명실상부한 4만 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원은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자영업 구조조정을 통한 내수기반의 확충 ▲기업 생태계의 균형발전 ▲보육·교육 등 공동체 인프라 투자의 확대 ▲한반도 공동체의 상생 발전 등 10대 전략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6%에 그쳤다고 밝혔다. 2009년 이후 3년 만에 1%대 추락이다. 성장률이 이처럼 떨어지면 일자리가 생기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추세라면 한은이 최근 대폭 내린 성장률 연 2.4% 달성조차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성장률 침체가 가져다주는 악순환이다.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 7만 개가 날아가는 것으로 조사돼 일자리 구하기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성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베이징 창안제 장식한 삼성 광고판 삼성전자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중국 베이징의 최대 중심가인 창안제에 버스정류장 광고판을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은 총 171곳으로 삼성전자 81개, 현대차 41개, 기아차 49개다. 창안제는 베이징을 동서로 관통하는 총 길이 43km의 대로로 일평균 교통량 [illegible]만 대, 유동인구 350만 명에 달하는 베이징 최대 중심 지역이다. 삼성전자는 버스정류장 광고를 통해 중국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최신 스마트폰과 스마트TV, 노트북, 카메라 등 제품 광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상준기자 사진=삼성 제공

하루 무려 1조원 '터치'로 오간다

5개 시중은행 스마트폰 뱅킹 이용자 1500만 돌파

스마트폰뱅킹 하루 거래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3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거래액도 덩달아 커진 것이다.

26일 5개 시중은행(KB·신한·우리·하나·농협)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가입자는 최근 5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월 평균 스마트폰뱅킹 이용(이체)건수는 1억4400만 건, 금액은 7조7704억원에 달한다.

산업·기업·외환 등 타 은행 5곳과 통상적으로 1인당 2~3개의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감안하면 1금융권의 스마트폰뱅킹 거래 규모는 월 30조~40조원 사이, 이용자는 1500만명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이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 평균 1조원을 움직이는 것이다.

스마트폰뱅킹이 활발해지면서 각 은행은 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보안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22일 스마트폰 가입 고객 500만 명을 돌파하며 '이용폰 지정서비스'를 도입해 보안 시스템을 한층 강화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지정된 스마트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토록 해 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농협의 경우 스마트폰뱅킹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고객은 '장기미사용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스마트폰뱅킹 고객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은행들도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웹 뱅킹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PC에서 이용하는 금융서비스 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지난 6월 출시된 우리은행의 '당근 이지(easy) 뱅킹' 앱은 고객이 자주 사용하는 조회, 이체 등의 기능만을 모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돼 있다.

/백상준기자 zan@metroseoul.co.kr

'자차' 가입율 64%로 상승

2000년대 후반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급증했다.

보험개발원은 26일 지난해 개인용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율 및 사고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년(60.3%, 573만대)부터 60% 부근에서 맴돌던 자차보험 가입률이 2009년부터 급증세를 보여 지난해엔 64.2%(822만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반도체 치킨 게임 끝 내년 시장은 구름 속"

"치킨 게임은 끝났다. 이젠 가치 창조 게임이다."

전동수(사진) 삼성전자 부품사업(DS)부문 메모리사업부 사장은 25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5회 반도체의 날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 사장은 "내년 시황은 한마디로 구름 속"이라며 "메모리 사업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변곡점에 들어섰다"고 현재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반도체 업체들은 기술에서 굉장히 앞서 가야 하고 그 기술을 가지고 세트업체에 가치를 전달하는 것으로 프로모션해야 한다"며 "첨단 제품의 가치를 보여줘야만 그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딱지 떼어 세수확대 '역주행 정부'

정론탁설
유병철
<언론인>

정부는 내년에 모자라는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교통딱지'를 많이 뗄 것 같다. 새해 예산안이 과태료와 과징금 징수 규모를 크게 늘려 잡았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기준대 벌금·몰수금·과태료 수입으로 3조6601억원을 계상해놓고 있다. 이는 올해보다 12.1%가 늘어난 것이다. 경기를 면에서도 전체 예산 증가율 5.6%보다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사실 지금의 경기전망으로 보아 전체 예산규모 자체에 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은 '균형'보다는 '확대'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판에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벌금을 비롯해 몰수금·과태료를 많이 물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문의 담당부처는 대체로 법무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다. 이들 3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를 제외하고 미치 담합(?)이나 한 듯 대폭적인 증수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잡자는 뜻에서 어느 정도 이해 부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잡고 있는 1조원에 가까운 9980억원의 내년도 수입목표액은 한마디로 '교통딱지'를 많이 떼어 충당하겠다는 의도다. 올해 예상되는 8987억 원에 비해 11.1%나 늘어난 규모다.

이러한 수입은 교통질서위반사범과 경범죄처벌법에 위반되는 범칙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범칙금 인상계획은 아직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대다수 국민들이 자칫 속도나 신호위반을 많이 하지 않으면 목표달성이 어렵다. 그렇다면 단속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우선 속도제한 구역을 많이 늘리거나 경찰력을 동원해 교통질서 위반사범을 적극적으로 적발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동안 잠잠했던 함정단속이나 몰래카메라가 다시 등장할지도 모른다.

사실 소액 벌금이나 과태료는 가벼운 경범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하다. 예산상으로도 세외수입으로 분류돼 놓고 있다. 기업회계 측면에서 보면 잡수입에 가깝다. 다시 말해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공공질서를 바로잡아 밝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 기본취지다.

이러한 본질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을 경범죄자로 만들어 부족한 예산 수입을 메우려는 발상은 애초부터 잘못됐다. 국민이 디기가는 정부라면 오히려 예산에 관계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수입은 오히려 줄어드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경기불황과 실업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부담을 주면서 굳이 세수를 높이는 일은 자제해야 마땅하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후보마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마당에 정부에서는 오히려 역주행을 하는 느낌이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포토프리즘 · 정치인 싼값에 팝니다

스페인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27일 마드리드 시내에서 '정치인들과 정부를 싼값에 팝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3년 만에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진 스페인은 현재 4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 상태로 재정 위기 완화를 위해 구제금융을 신청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AP 뉴시스

뜨거운 논쟁 바라는 安

오늘의 시선
원이윤
<칼럼니스트>

"국민의 정치혐오에 기댄 포퓰리즘이다." "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왜 포퓰리즘이냐."

국회의원 수 축소, 중앙당 폐지,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10.23 정치 쇄신안을 둘러싼 논쟁이 대선판을 달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 진보 성향 시민단체까지 안 후보의 쇄신안에 대해 "정치개혁 본질과는 거리가 먼 포퓰리즘"이라며 큰소리 일색이다. 하지만 안 후보는 한 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발(發) 쇄신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안 후보의 쇄신안을 '국민의 정치 불신을 이용한 선동정치'라고 비난했다. 단일화 상대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28일에도 "국민이 정치를 불신한다고 정치 자체를 위축시켜선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학계는 "정치개혁 본질과는 거리가 멀고 포퓰리즘 성격이 짙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의원 정원 축소는 의회정치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후보는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지난 주말 경상대 강연에서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왜 포퓰리즘인가"라며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의 비난을 정면으로 되받아쳤다. 민감한 사안에는 에둘러 표현하던 평소의 태도와 달리 작심한 듯 강한 어조였다. 국민의 요구를 명분으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갔다. "19대 국회가 16% 정도 세비를 인상했는데 그래서 정치를 더 잘했느냐"며 의원 불체포특권, 연금 및 세비 인상 등에 대해 작정하고 직격탄을 날렸다.

안 후보가 이처럼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은 다분히 의도된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대선 구도를 기득권 세력과 새로운 세력 간의 대결 구도로 몰아가겠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쇄신안 반대를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몰아붙이고 정치 쇄신 논의를 자신이 주도해 나가면서 국민 지지의 폭을 넓혀가려는 '의도된 기득권 때리기'라는 얘기다.

안 후보가 "기존 정치권이 강력히 반대할 걸 알았다"면서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한 게 그 방증이다. 안 후보 측이 "국민 반응은 기성 정치권에 '할 말은 했다'는 응원이며 비판적 분위기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논쟁이 뜨거워질수록 안 후보에게 득이 되면 됐지 손해날 것 없다는 자신감이 배어있는 것이다.

형설지공 고사성어 되살린 달빛독서

인문학 산책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

가을비가 내리면 도시는 부드러워진다. 그 비를 색색의 우산으로 떠받쳐 들고 가는 이들의 발걸음이 내는 소리는 사뭇 정겹다. 팝송 '라스트 오브 더 롤링 레인'이 어디선가 들려나오면 정취는 더 깊어진다. 이러면서 도시는 조만간 또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단풍으로 물드는 산과 들이 사방에서 어우러지면 우리는 그 풍경 속으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자연과 격리되면서 도시는 탄생했다. 그 둘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은 것으로 봤었다. 촌뜨기와는 격조가 다른 면모를 갈구했던 시대의 산물이었다. '촌계관청(村鷄官廳)'이라는 말은 시골 닭이 한양관청을 보고 그 규모에 놀라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을 일컫는다. 그러나 사실 촌계(村鷄)는 촌닭이 아니라 '촌뜨기'의 이두식 표현이다. '뜨기'라는 말도 따(땅)+기(지)의 음운변형으로 지기 동네 땅에서는 엄지처럼 으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래 봐야 서울에서는 내세울 게 없는 존재가 된다.

촌뜨기와는 다르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도시는 콘크리트와 철골 그리고 기계로 움직이는 공간들로 잔뜩 무장했다. 대낮처럼 밝힐 수 있는 조명등과 거미줄처럼 얽힌 지하의 세계는 자연의 한계를 뛰어넘은 구도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만큼 도시는 행복해진 것일까?

'형설(螢雪)의 공(功)'이란 반딧불과 흰 눈에 비친 달빛으로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해 관직에 나선 이들의 가난하고 고된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고사성어다. 요즘에는 반딧불을 보기도 어렵고 달빛도 도시의 금빛에 가려져 이전에 보던 것과는 그 밝기가 다르다. 자연을 파내버린 자리에 세워진 공간이 잃어버린 것들이다.

옛 서울시청 건물이 '서울도서관'으로 단장해서 지난 26일 문을 열었다. 서울 한복판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새로운 차원을 가진 랜드마크의 출현이다. '책을 읽는 서울'의 두뇌와 심장이 생긴 것이다.

개관 기념으로 열린 북 페스티벌의 절정은 '달빛독서'였다. 어둠이 깔린 시각 독서 시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도서관 친구들이 '북 라이트'를 나누어주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엄마와 아빠가 서울광장 잔디밭에 둘러앉아 불을 켜고 책을 읽기 시작한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함께 책을 읽는 이들의 모습은 아름답고 행복하다. 반딧불과 달빛을 상실한 시대에 보는 이 풍경은 서울도서관과 함께 서울의 명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제언, 주장(원고지 3~4매 내외) 등을 e-메일(opinion@metroseoul.co.kr)로 보내주시면 지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가격표 안붙인 편의점 상술

박선현(23·직장인)

출근할 때 회사 앞에 있는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유나 김밥, 초코바 같은 아침거리를 사러 가는데요. 요즘 가격표 때문에 불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매대에 가격표가 아예 안 붙어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한 번은 주머니의 잔돈밖에 없어서 급한 대로 그 돈에 맞춰 스낵을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가 제대로 없으니 바코드를 찍으려 계산대에 서너 번은 오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많이 파는 껌, 초콜릿, 소포장 과자 등 소위 미끼상품들에도 가격표가 없어 기분은 마음에 골랐다 결제할 때 가격을 보고 놀라기도 합니다.

편의점 업체는 손님들에게 '바쁘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그냥 사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편의점이 슈퍼보다 비싸도 가까워서 편하니까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최근에 과자나 음료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걸 숨기려고 하는 건지 의심도 됩니다. 한 푼이 아쉬운 요즘, 계산대에 가서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찍히면 속이 상하는 게 직장인입니다.

'2+1' 행사 같은 이벤트에만 치중하지 말고, 가장 기본이 되는 가격 표시부터 제대로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야 너무 비싸게 판다 싶으면 안 사게 되고, 편의점들의 가격 경쟁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metro entertainment

Star bag

김희선 '올해의 뷰티 아이콘'

배우 김희선이 제9회 코스모폴리탄 아시아 뷰티어워에서 올해의 아이콘 에 선정됐다.

다음 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시상식은 중국의 화장품업계와 엔터테인먼트업계를 아우르는 자리로, 한국과 중국·홍콩의 여배우 3명이 '올해의 아이콘'으로 선정됐다. 김희선은 현재 SBS 월화극 '신의'에 출연하며 중화권에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YB-리쌍 12월 합동콘서트

정상의 록밴드 YB와 힙합듀오 리쌍이 새로운 브랜드 공연으로 뭉친다.

이들은 12월 23~24일 경희대 평화의전당에서 합동 콘서트 '닥공'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록과 힙합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주최 측은 "무림이 기획과 제작과정에 직접 참여해 왜 말이 필요 없는 '닥치고 공연' 진지를 보여주는 무대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용감한 녀석들' 양선일 결혼

KBS2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용감한 녀석들' 여름연중인 양선일이 4세 연하인 29세 일반인 여성과 28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날 결혼식의 주례는 개그맨 전유성, 사회는 '개그 콘서트'의 '거지의 품격'에서 활약 중인 허경환이 맡았다. 축가는 '용감한 녀석들'의 멤버들이 불렀다.

가수 소향 '마의' OST 참여

MBC '나는 가수다 2'로 주목받은 가수 소향이 MBC 월화극 '마의' OST에 참여했다.

그는 OST 타이틀곡 '오직 단 하나'를 불렀다. 백광현(조승우)과 강지녕(이요원)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1일 방송된 첫 회에 등장했다. 음원은 30일 각종 음악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첫 악역, 묘한 카타르시스"

#한겨울 5시간 넘게 수중신 촬영

2005년 '쾌걸춘향'부터 지난해 종영한 '공주의 남자'까지 출연하는 작품마다 승승장구했지만 연기에 는 목말라 있었다. "'프라이멀 피어'의 에드워드 노튼이나 '아메리칸 사이코'의 크리스찬 베일 같은 역할을 해보고 싶다"며 노래를 부르고 다닌 지 7년 만에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로 꿈을 이뤘다.

연쇄살인의 공소시효가 끝난 뒤 번듯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두석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용서가 안 되는 나쁜X이지만 데뷔 이래 첫 악역 연기를 하면서 묘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

"이두석은 생각을 종잡을 수 없는 미스터리한 캐릭터예요. 실제로 저도 주위 분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밋밋하게 생겨서 그런가? 하하하. 티저가 공개되고 '정말 살인범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니까요."

천운처럼 만난 영화인 만큼 고생도 남달랐다. 목욕가운만 입고 자동차 보닛을 넘나드는 추격신을 열흘 넘게 촬영했다. 한겨울 찬물 속에서 몇 시간이 넘는 수중신을 촬영할 땐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굴뚝같았다.

"스태프 중 한 명이 잠시 물속에 들어갔었는데 '이건 아니다'라면서 곧은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겁이 서릴까봐 일부러 찬물로 촬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해요."

연쇄살인범 이두석 파격변신
나도 이 캐릭터처럼 미스터리?
밋밋하게 생겨 그런가 … 하하

그가 이런 고생을 감내한 이유는 대본을 받아 드는 순간 '느낌'이 왔기 때문이다. 그 느낌이 없었다면 때리면서 하라고 해도 출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제 감이 잘 맞는 편이에요. 신기가 있나? 사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신중한 성격이라 살짝기 격은 것 같아요. 이번 영화 스코어로 소박하게 200만 예상해 봅니다. 200만 번째로 입장하는 관객은 변픽 안이 올려서 한 바퀴 돌겠습니다. 남성분도 환영이에요."

#달콤+강렬 이미지 두 토끼 잡기

첫 영화 신고식을 마치기 무섭게 SBS 주말극 '청담동 앨리스'로 시청자 앞에 선다. 여성에 대한 염세주의를 갖고 있는 엉뚱남 캐릭터로 앞서 여심을 흔들었던 '신사의 품격' 김도진을 뛰어넘는 매력남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정변화와 스펙트럼이 커서 연기하는 재미가 남다를 것"이라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번 작품에서 합을 맞추게 된 문근영과의 연기호흡도 기대된다.

"(문)근영씨가 출연한 '가을동화'를 연상 깊게 봤는데 화면이랑 똑같이 정말 귀엽더라고요. 연기를 잘하는 친구라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근영씨는 저를 오빠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근영씨'라고 불러본 적도 없네요. 이제부터 친해지려고 노력해야죠."

영화와 드라마를 병행하는 연기자로서 드라마 속 달콤한 모습과 영화 속 강렬한 모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그의 목표다. 낯을 많이 가리지만 장난기가 넘치고, 진지하지만 주장이 확실한 자신의 성격이 작품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캐릭터에 몰입하지 않으면 진실된 연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게 제 장점 같아요. 진심된 연기로 최선을 다하면 시청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믿어요. 그래도 영화 흥행과 드라마 시청률 모두 결정사기 난다면 금상첨화겠죠!" /권보호기자 mairagwon@metroseoul.co.kr

사진/서보형(럭셔드리아마) 디자인/이선경

장엄하다 타이타닉전 경이롭다 인체의 신비

베네시안 마카오 리조트 호텔 대형 기획전시회 오픈 '관광객 유혹'

아시아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베네시안 마카오 리조트 호텔'이 대형 기획전 '타이타닉'과 '인체의 신비'를 오픈하고 세계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타이타닉호의 처녀 항해 100주년을 맞이 기획된 '타이타닉'전은 연회장과 계단, 1등 선실, 산책 갑판 등을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했다. 침몰된 타이타닉호에서 건져 올린 400여 가지 공예품과 항해일지, 승객들의 일기장은 물론 당시 함께 한 승무원들의 이야기도 영상으로 공개된다.

인간의 신체 내부를 실제로 전시해 충격을 줬던 '인체의 신비'전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전시회 중 하나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인간의 미세한 피부 조직까지 보여주는 교육적인 기능으로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들 기획전은 내년 2월 24일까지 이어진다.

베네시안 마카오는 지난 26일 한국과 일본은 물론 아시아 각국 취재진 300여 명을 초청해 이번 행사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브랜든 쉘라잇 부사장은 "마카오에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 없는 대규모 기획 행사를 마련해 기쁘다"며 "타이타닉의 장엄하고 당당한 모습, 인체에 관한 경이로움을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베네시안 마카오는 이번 기획전 외에도 다음 달 21일부터 리조트 주위를 환상적인 조명으로 꾸며 겨울 동화의 나라를 선보이는 '베니스에서의 겨울'과 10일 종합격투기 UFC 마카오 대회를 개최한다. 김동현, 임현규, 강경호 등 한국인 파이터 3명이 출전한다.

브랜든 부사장은 "대형 스포츠 행사와 슈퍼스타 콘서트, 세계적인 시상식 등을 유치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이 행사들은 마카오 현지인은 물론 우리 리조트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7년에 개장한 베네시안 마카오는 마카오 최초의 복합 리조트로 곤돌라가 다니는 실내 운하와 이탈리아 베니스의 기념비적 건축을 재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3000여 스위트 객실은 물론 백화점 규모의 330여 개 카날숍, 11만1000㎡가 넘는 컨벤션 센터, 공연을 위한 1만5000석의 코타이 아레나, 30여 개의 고급 레스토랑, 어린이 전용 실내 놀이터, 수영장과 미니 골프코스 등을 갖추고 있다. /김민준 기자 mjkim@

▲▲ 베네시안 마카오 리조트 호텔의 실내 운하에 떠다니는 곤돌라
▲ 인체의 신비 전시장
▶ 타이타닉호의 연회장을 재현한 모습

지금 daum 소셜에서는 와글와글

치과의사 환자폭행 진실공방

60대 환자를 폭행했다며 '패륜 치과의사'로 낙인 찍힌 스위트 예를 치과 원장 이광성입니다. 당시 저는 수술을 위해 얼굴뼈를 자른 상태였습니다. 뼈가 잘못 고정될 경우 신경·혈관 손상이 오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환자 황○○씨는 이런 제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너 이거 수술했다며? 너도 나만큼 아파봐!"라며 저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 방어했고, 제 주먹은 대부분 싸움을 말리느라 끼어든 병원 직원이 맞았습니다. 오죽하면 함께 사진을 본 사람들이 "원장 손은 솜방망이"라는 댓글을 달겠습니까. 생니를 뽑고 공짜 임플란트 시키를 쳤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주기 치료가 필요해 보호자와 환자의 동의를 받은 뒤 수술을 했고 이 과정을 담은 CCTV도 있습니다.

치료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의사를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제발 환자는 환자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인권을 인정해주세요. /정리 (wave****)

Vision Ks 환자가 의사를 1년간 괴롭히고 영업 방해했다던데. 망막한 지 얼마 안 된 얼굴까지 찍혀니 돌 수밖에요.
겨울비남 영상 보니 자기 분에 못 이겨 이불 킥고 거 제듯 했던데. 의사생활 끝난 듯싶다
겨울 서비스업 종사자는 할 것이다. 자살충동 느끼게 하는 진상을 겪어봐야 알지
아이린 부모님 병원 가실 땐 꼭 진료실 안까지 같이 들어가세요. 원 무서워서
라디오 노인을 폭행한 건 잘못이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니 이해는 가네요. /정리=권보람 기자 kwon@metroseoul.co.kr

꽃남 A '대단한 바람둥이'

연예가 소곤소곤

▶나이·외모 불문 많은 가수 '작업'

달콤한 매력으로 여성 팬의 마음을 녹이는 꽃미남 배우 A가 알고 봤더니 화려한 여성 편력을 자랑하는 '육식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정다감하면서도 무심한 듯한 매력으로 여성을 더욱 애타게 하는 평소 그의 모습은 타고난 '작업 기술'이 자연스럽게 녹아난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는 주로 활동 영역이 다른 여자 아이돌 그룹에 화려한 작업 기술을 구사해 왔다고 합니다. 또한 왕성한 작업량을 자랑해 나이·외모를 불문한 많은 가수들이 한 번쯤은 그의 이성의 매력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역시 좋은 연기는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인맥 과시하는 여배우 B '쯧쯧'

귀여운 외모와 풍만한 몸매를 자랑하는 여배우 B가 캐스팅 과정에서 영화계 높은 분 과의 인맥을 자주 과시한다고 합니다. 그는 연기력과 스타성을 아직은 믿지 못하는 제작자들에게 "모 대기업 계열의 투자·배급사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라며 "날 주연으로 캐스팅하면 투자는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하기 일쑤라는데요. 한 감독은 "연기력으로 승부해야 할 배우가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런가 하면 개성파 조연으로 사랑받고 있는 남자배우 C는 소박하고 털털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까탈스러운 행동으로 제작진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주연에 버금가는 대우를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스태프를 괴롭히곤 한다는데요. 앞에선 주연 배우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는 척하면서 뒤에선 180도로 달라지는 걸 보니 역시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가 맞나 봅니다.

▶오디션 스타 D양 '기사회생'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발군의 미모로 기대를 모았던 D양의 미래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대형 소속사의 러브콜을 받아 전속계약을 맺은 그는 같은 기수 참가자들 중 가장 탄탄대로를 보장받는 듯 했지만, 해당 소속사가 번번이 가수 매니지먼트에 실패한 데 이어 연기파트에 집중투자를 결정하면서 가수 활동 자체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관계자는 "전속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를 중단하더라도 이적이 불가능하다. 꼼짝없이 매여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D양의 처지가 안쓰럽다고 귀띔했습니다. 다행히도 조만간 드라마 출연 기회를 잡을 것 같다고 하니, 이참에 연기로 전업을 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잘나가는 두 여배우 편집 굴욕

잘나가는 드라마에 출연 중인 두 여배우 E와 F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란히 편집을 당하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드라마에서 호흡을 맞추는 남자 배우 G의 예능 출연을 응원하러 함께 녹화장을 찾았는데요. 이날 카메라에 잘 잡히는 객석 맨 앞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방송을 미소를 지으며 열심히 응원을 했다고 합니다. 응원에 힘입어서일까요? G는 무대에서 의외의 예능감으로 큰 웃음을 줬고, 덩달아 E와 F도 녹화 내내 카메라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아 나중에 방송에 나올 자신들의 모습을 한껏 기대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정작 방송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 단 한 컷 외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무척 속상해했다고 합니다.

가수 신승훈에게 이런 면이…

실험적 콘셉트 전국 투어

가수 신승훈이 실험적인 콘셉트의 전국 투어로 화려한 일탈을 선보인다.

그는 27~28일 경기 고양 고양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더 신승훈 쇼 판 투어'라는 이름으로 투어의 막을 올렸다.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이후 2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이전보다 대중적인 무대를 선사하겠다는 의미에서 '팝 투어'라는 이름을 추가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랩 '메모리스' '헐토스' '응답하라 1993' 'OST' 등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를 꾸몄다. 특히 윈도스 모니에 시뉴 김현식에 비치럼 음악처럼 유재하의 그대와 영원히를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불렀다.

신승훈은 공연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라마로 치면 외전 같은 거다. 기존 공연에서 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콘셉트상 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공연"이라며 "저를 그냥 발라드 하는 가수라고 생각하시던 분들은 '이런 면이 있었어?'라고 놀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순호기자 suno@

'슈스케4' 심사위원·대중 출연자에 서로 다른 시선

Mnet '슈퍼스타K 4'가 심사위원 점수와 반대로 가는 탈락자 선정으로 시청자들의 눈총을 샀다.

26일 세 번째 생방송 경연의 탈락자로 선정된 허니지는 빛과소금의 '오래된 친구'를 편창하며 180도 달라진 모습을 선보였다. 이승철로부터 극찬받으며 심사위원 총점 272점을 기록했지만 결국 문자투표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과 함께 탈락의 문턱에 섰던 딕펑스 역시 탄탄한 편곡과 진솔하고 창의적 있는 무대매너로 심사위원 총점 277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 생방송을 통틀어 된 팀을 구제할 수 있는 '슈퍼세이브' 혜택을 받은 이들은 구사일생으로 다음 경연에 출전 자격을 얻었다.

반면 무리한 선곡과 불안한 음정으로 혹평을 사며 259점을 획득한 정준영은 생존자 명단에 올랐다. 대중의 선호도를 판단하기 위한 문자투표가 팬덤 간 인기투표 경쟁으로 변질되면서 빚어진 결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의 엇갈린 생존과 탈락에 반발하듯 3차 생방송 경연이 끝난 뒤 사전온라인 투표 순위가 요동쳤다. 줄곧 하위그룹에 머무르던 딕펑스가 2위로 올라선 반면, 첫 주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던 정준영은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투표 결과는 탈락자 선별을 위한 총점의 10%를 차지하게 된다.

정준영 딕펑스

한편 '슈퍼스타K 4'의 생방송 진출 12팀은 12월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SK핸드볼경기장을 시작으로 인천과 대구, 광주·수원·부산을 거치는 대국민 감사 전국 투어 콘서트를 진행한다.

/김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빌보드 표지모델 된 싸이 후속곡 한국어 반, 영어 반

가수 싸이가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후속곡에 대한 계획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는 26일 방송된 CNN 뉴스에서 "후속곡은 한국어와 영어가 반반씩 들어간 노래가 될 것"이라며 "'말춤' 인류 '강렬할'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춤도 선보일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강남스타일'의 성공을 넘어서려고 애쓰진 않을 거다. 유튜브에서는 '강남스타일' 만큼 성공할 수가 없다"며 "다시 한번 히트곡을 내 '원 히트 원더(한 곡만 히트하고 사라지는 가수)'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5주 연속 빌보드 차트 2위를 차지한 싸이는 다음 달 3일 발행될 미국 음악전문지 빌보드 최신호 표지모델로 낙점됐다. 싸이는 트위터에 "내가 빌보드 표지모델~!"이라는 글을 올리며 자신의 사진이 실린 표지 이미지를 공개했다.

5억 명의 싸이 팬들은 틀리지 않았다"는 제목의 커버스토리 안내문과 함께 '말춤'을 추는 크고 작은 싸이 사진들이 가득 채워졌다.

한편 싸이는 미국 내 인기에 힘입어 내년 1월 26일 애너하임 혼다 센터에서 단독 공연을 개최한다. 1만90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으로 'SM타운 라이브'가 열린 바 있고, 다음달 3일 빅뱅의 첫 미국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기도 하다.

/유순호기자

Billboard

500,000,000 PSY FANS CAN'T BE WRONG

영화 '아르고' 촬영장의 벤 애플렉(맨 오른쪽).

"韓영화 美 리메이크 이유 있다"

할리우드 톱스타 벤 애플렉 e-메일 인터뷰

"질적수준 높아 — 연출은 내게 흥미로운 일"

할리우드 톱스타 벤 애플렉이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을 높아 평가했다.

31일 개봉될 '아르고'에서 연출과 주연을 겸한 애플렉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한국영화들은 전문성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중에는 극적인 드라마가 두드러지는 작품들도 있다"며 "많은 한국영화들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리메이크되는 작품일수록 훌륭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아주 잘 만들어졌다"고 호평했다.

이어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데, 그 친구는 내게 한국에 가보라고 늘 재촉한다"면서 "가능한 이른 시일에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와 조지 클루니에 이어 할리우드 톱스타로는 보기 드물게 연출을 병행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연출은 내게 흥미로운 주제들을 탐구할 수 있는 더 넓은 기회를 준다"며 "이스트우드와 아번 작품에서 제작을 맡은 클루니 등 다양한 장르의 많은 예술가들을 모두 존경하지만, 그들과 같은 길을 가는 게 목표는 아니다. 한 인간으로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이 되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답했다.

2007년 '곤 베이비 곤'으로 감독 신고식을 훌륭히 치른 애플렉은 2010년 범죄 스릴러 '타운'에서 연출과 시나리오, 주연을 최초로 겸해 평단의 찬사를 받았다. 당시 할리우드 관계자들은 "'굿 윌 헌팅'에서 함께 시나리오를 쓰고 연기했던 맷 데이먼에 비해 내리막길을 걷던 애플렉이 다시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작품을 만지는 솜씨가 이스트우드와 흡사하다"며 '젊은 이스트우드'란 별명을 선사했다.

한편 1979년 이란 혁명 당시 현지에 억류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기상천외한 구출 실화를 옮긴 이 작품에서 그는 CIA 요원 토니 멘데즈 역을 맡아 무게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연출 실력도 뛰어나, 내년 아카데미와 감독상 후보로도 벌써부터 거론되고 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박주미 촬영 복귀, 적어도 한달 걸린다

교통사고를 당한 박주미가 병원으로부터 4~5주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소속사는 26일 "긴 내부 열상, 갑상선 연골 골절, 무릎·복부·목의 찰과상을 입었다. 일상 생활로의 복귀는 큰 문제가 없으나, 후유증 및 결과를 지켜봐야 하기에 회복을 위해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주미는 사고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25일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현재 출연 중인 KBS1 '대왕의 꿈'에 대해선 "상태에 따라 향후 활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한편 그룹 스윗소로우의 멤버 송우진과 김영우도 26일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송우진은 왼쪽 눈썹 윗부분에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김영우는 외상은 없지만 목과 골반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는 척추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박진영기자 bak0427@

김재중 카리스마 다 어디갔어?

스크린 데뷔작 '자칼이 온다'서 망가진 연기

JYJ 김재중이 스크린 데뷔작 '자칼이 온다'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아이돌의 이미지를 벗고 '굴욕의 아이콘'으로 변신한다.

11월 15일 개봉될 이 영화에서 그는 전설의 킬러 봉민정(송지효)에게 납치당한 톱스타 최현을 연기한다. 탈출을 꿈꾸다 실컷 얻어맞고 멍투성이가 되는가 하면, 헝클어진 머리에 불이 붙어 연기가 피어오르는 등 망가진 모습으로 소녀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또 자신이 최현과 닮은꼴 무명가수라고 주장하며 반백의 밤무대 의상과 2 대 8 가르마로 유치 연기를 선보이는 등 몸 개그도 서슴지 않는다.

김재중은 "좋은 작품이므로 망가지는 연기가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본인이 먼저 분장과 설정을 제안하는 등 과감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촬영에 임했다"고 귀띔했다. /조성준기자

부쩍 추워진 날씨, 관절 주의보 발령

스트레칭·반신욕·가벼운 걷기운동 습관화하고
통증 심할땐 진통·소염 파스패치제 '케토톱' 도움

날이 추워지면 걱정해야 할 게 감기만은 아니다. 쌀쌀하게 온도가 내려갈수록 이른 아침에나 저녁 무렵 관절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는데, 갑작스럽게 관절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교차나 기후 변화에 민감하게 관절 통증을 느낀다면 이번 겨울엔 관절 건강을 챙겨야 한다. 올 겨울은 예년보다 큰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보돼 있어 관절통 증상에 꼼꼼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관절통을 그대로 방치한 채 추운 겨울을 나게 되면 자칫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 있어서다.

태평양제약의 케토톱 브랜드 매니저 김호진 대리는 "추울수록 관절 통증 또한 더욱 심해지고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1월 초부터 겨울철 관절 건강관리를 위한 '월동'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온 떨어지면 근육·인대·혈관 수축

따뜻한 낮에는 괜찮다가 기온이 낮아지는 저녁이나 새벽에 무릎이나 허리가 쑤시는 건 왜 그럴까. 날씨에 따라 관절 상태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원인이다. 세란병원 인공관절센터 오덕순 원장은 "날이 추워지면 근육과 인대, 혈관의 수축 현상이 일어나기 쉽고 혈액 공급도 줄어들어 자연스레 관절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관절통을 줄이려면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온에 신경 쓰면 좋다. 새벽이나 저녁에 뻣뻣하게 굳고 쑤시는 관절에는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도움이 된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갑자기 움직이기 보다 간단히 스트레칭을 해 충분히 관절을 풀어준 후 활동을 시작하도록 한다.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도록 반신욕을 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케토톱, 피부를 통해 환부에 약물 도달

관절과 주변 근육, 인대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적당한 수준의 운동도 필수다. 관절 주변부가 약하면 근육이 부담할 운동량과 압력이 분산되지 못하고 관절로 쏠리기 때문에 관절 건강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수영 등이 도움이 된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를 대비해 관절 치료 효과가 있는 파스 제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관심도 필요하다. 일반 파스보다는 진통 효과뿐 아니라 케토톱 등 소염 효과까지 주는 경피흡수제제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관절통을 가라앉힐 수 있다. 피부를 통해 침투한 약물이 직접 환부에 도달하기 때문에 손목, 발꿈치, 무릎, 허리, 어깨 등 각 관절 부위의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한효순기자

<다뇨·다음·다식>

당뇨병이 보내는 신호 '삼다' 체크

서남병원 전문클리닉 ⑤ 당뇨병클리닉

서울시 서남병원은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운영하는 서울시립병원이다. 노인성질환전문 진료기관으로 서울 서남권 중심 공공의료기관이다. 노인성질환 대응시스템 강화를 위한 서남병원의 전문클리닉을 5회에 걸쳐 알아본다.

당뇨병은 경제수준 향상과 더불어 급격히 증가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도 이미 당뇨병 환자수가 5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자신이 당뇨병환자임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

소변을 자주 많이 보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공복감이 심하게 느껴져 많이 먹는 경우, 즉 다뇨(多尿) 다음(多飮) 다식(多食)이 있다면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아봐야 한다.

당뇨병은 고혈당 그 자체보다는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치명적일 수도 있는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점을

더욱 유념해야 한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으로는 심혈관질환, 망막병증, 신증, 신경병증, 족부병,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으며 만성합병증의 경우 일단 발생하면 회복이 안 되므로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다른 질환과 달리 당뇨병은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서남병원 당뇨병클리닉에서는 정확한 검사와 치료, 일대일 맞춤형영양상담, 혈당조절과 함께 합병증 관리 및 생활습관 변화 훈련뿐 아니라 당뇨교육, 시민건강강좌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스타일 속옷 '마커스콜'

이제이드 새브랜드 론칭

방송인 변정수의 속옷브랜드 엘라호야 시크릿을 전개해 온 이제이드가 지난 6년간 엘라호야 시크릿을 100만 세트 판매한 노하우를 모아 최근 또 다른 속옷브랜드인 '마커스콜'을 출시했다.

마커스콜은 미국 캘리포니아 젊은이들의 라이프스타일 콘셉트를 표방해 다양한 색상과 소재는 물론이고 멋스러운 디테일까지 더해 개성 있는 연출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마커스콜 론칭기념으로 이제이드는 롯데아이몰에서 오늘(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여성세트 구매 시 워머, 기능성 거들스타킹을 증정한다.

中·日 "너구리 나가!"

'발암물질' 농심 6개 제품 해외서도 '리콜' 명령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돼 유해논란 중심에 선 농심의 라면 제품들이 해외에서도 뭇매를 맞는 중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5일 벤조피렌이 검출된 6개 제품을 회수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과 일본 당국이 수입업자들에게 문제가 된 라면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린 상태다.

판매가 중단됐던 대만에선 다시 판매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심은 대만 공인연구기관의 검사 결과 현지에서 유통 중인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신라면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한편 농심은 지난 26일부터 국내에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시작했다. 대형마트에선 해당 제품이 거의 다 팔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가정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구입한 소매점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 /전효순기자 hsjeon@

metrosports

SK 17안타 폭발 "타선 불 붙었다"

SK 김강민이 28일 열린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6회 말 극적인 3점 홈런을 날리고 유로월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삼성 12-8 꺾고 한국시리즈 반격 1승… 김강민 스리런 포함 4타점 MVP

SK가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한국시리즈 2연패 뒤 반격의 1승을 올렸다.

SK는 28일 문학구장에서 열린 삼성과의 2012 팔도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장단 17안타를 몰아쳐 12-8로 승리했다. 특히 1-6으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는 뒷심을 발휘해 단기전 명수다운 집중력을 뽐냈다.

김강민은 8-7로 앞선 6회 말 2사 1, 2루에서 3점 홈런을 쏘아 올려 난타전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날 4타수 2안타 4타점의 맹활약으로 경기 MVP에 뽑히는 영광도 안았다.

톱타자 정근우는 5타수 3안타 1타점 2득점으로 지원사격을 했고 최정 역시 4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SK는 1회 말 선두타자 정근우가 2루타를 치고 나간 뒤 최정의 적시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그러나 삼성은 3회 초 진갑용의 볼넷을 시작으로 상대 실책, 배영섭의 몸에 맞는 볼로 순식간에 무사 만루를 만든 뒤 정형식이 불키운트 끝에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 동점을 만들었다. 이어 이승엽이 2타점 적시타를 날렸고 최형우가 우측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을 작렬해 분위기를 완전히 뒤어잡았다.

하지만 뒤이은 SK의 반격이 무서웠다. 3회 최정과 박정권의 2루타로 1점을 만회한 뒤 김강민의 추가 1타점 적시타로 추격에 나섰다. 이어 4회 박진만의 솔로 홈런 등으로 2점을 보태 5-6으로 따라갔다.

5회 초 다시 1점을 내줬지만 6회 대거 6점을 뽑아 승부를 결정지었다. 선두타자 박진만의 2루타와 임훈의 절묘한 번트 안타로 만든 1사 1, 3루 찬스에서 정근우의 적시타로 1점을 뽑았다. 이어 삼성의 실책에 편승해 경기를 뒤집은 뒤 김강민의 좌월 스리런이 터지며 11-7로 달아났다. 이호준은 8회 솔로포로 승리를 자축했다.

SK 불펜은 송은범(2이닝)과 박희수(1⅓이닝)가 나란히 무실점 호투했고, 마무리 정우람은 한국시리즈 첫 등판에서 1이닝 1실점으로 팀 승리를 지켰다. 송은범은 타선 덕에 행운의 구원승을 올렸다.

/최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 한국시리즈 3차전 전적

삼성	006	010	001	8
SK	102	205	01X	12

▲승 송은범 ▲패 안지만

손흥민·이청용 득점포 '활짝' 박지성은 부상 결장 '먹구름'

유럽파 스타들이 주말 희비 쌍곡선'을 그렸다. 손흥민과 이청용이 득점포를 가동한 반면 박지성은 무릎 부상으로 시즌 첫 결장했다.

◆ 손흥민 함부르크 미래' 극찬

손흥민(20·함부르크·사진)은 27일 오전 열린 2012-2013 독일 분데스리가 9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원정경기에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전반 13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팀의 2-0 승리를 이끌었다.

지난 6일 그로이터 퓌르트전 이후 2경기 만에 다시 득점포를 가동한 그는 시즌 5호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로 뛰어 올랐고, 마리오 만주키치(7골), 토마스 뮐러(6골)에 이어 리그 득점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승리한 함부르크 역시 4승1무4패(승점 13)를 기록해 리그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부상에서 복귀한 아우크스부르크의 구자철은 이날 결장해 한국 선수 간 맞대결은 불발됐다.

독일 언론 빌트는 손흥민에게 양 팀 통틀어 최고 평점인 2를 부여했고, 디벨트는 그를 '함부르크의 미래'로 평가하며 "함부르크는 겨울 이적시장에서 손흥민과 재계약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극찬했다.

◆ 기성용 풀타임 활약은 박해

기성용(23·스완지시티)은 28일 오전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호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풀타임 활약했지만 팀의 0-1 패배를 막지 못했다. 5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으로 이날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 공수를 넘나들며 맨체스터 시티를 괴롭혔다.

그러나 스완지는 후반 15분 카를로스 테베스에게 결승골을 허용해 0-1로 분패했다. 경기 후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했다"며 기성용에게 팀 내 가장 낮은 평점 5로 박한 평가를 내렸다.

박지성(31-퀸즈파크 레인저스)은 아스널 원정에서 시즌 처음으로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마크 휴즈 감독은 "박지성이 22일 에버턴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다"며 결장 배경을 설명했고, QPR은 0-1로 패배 시즌 첫 승 수확을 또 미뤘다.

◆ 이청용 18개월 만에 부활포

이청용(24·볼턴)은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13라운드 미들즈브러와의 원정경기에서 선발출전해 18개월 만에 부활포를 터뜨렸다. 프리드먼 감독은 볼턴 부임 후 치른 첫 경기에서 이청용을 선발로 출전시켜 측면 공격을 주도하게 했고, 이청용은 전반 42분 시즌 마수걸이 골을 넣으며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러나 볼턴은 후반 22분과 40분에 잇달아 골을 허용해 1-2로 역전패했다.

김보경(23·카디프시티)은 번리FC와의 홈경기에서 측면미드필더로 시즌 첫 선발출전해 78분 그라운드를 누비며 팀의 4-0 대승에 기여했다. 이날 승리로 카디프시티(9승1무3패·승점 28)는 리그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김민준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6 What's your name? 자기 소개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브드립니다.

영어 통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86. 아니오, 저는 아니에요.
87. 이분은 마이어스 씨입니다.
88. 처음 뵙겠습니다.
89. 틸먼 부인, 이 분이 엘리엇 김 씨입니다.
90. 당신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86. No, I'm not.
87. This is Mr. Meyers.
88. How are you doing?
89. Mrs. Tillman, this is Mr. Elliott Kim.
90. Very nice to meet you.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86~9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이분은 is Mr. Meyers. He is my boss.
B: How are you doing, Mr. Meyers?

정답: This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Mrs. Jones, this is [Mr. Matthew Smith / my family].
2. [It's a pleasure / I'm pleased] to meet you, Mr. Smith.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he Nevinton Library is open _______ all community residents.
(A) to (B) on
(C) from (D) at

02. For a full refund, please _______ the product in its original packaging.
(A) returns (B) returned
(C) return (D) returning

01. 네빈톤 도서관은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다.
해설: 대상(~에게)을 나타낼 때는 전치사 to를 쓴다.
어휘: community 지역 사회, 공동체 resident 주민
정답: (A) to

02. 전액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제품을 원래 포장에 넣어 반송하세요.
해설: please 다음에는 동사원형이 와야 한다. 빈칸에는 동사원형인 return을 쓴다.
어휘: full refund 전액 환불 original 원래의 packaging 포장
정답: (C) return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5. 해결책 제시하기!

• I will ~
I will send one of my staff members to deliver it.

• I suggest that ~
I suggest that you call a catering service.

• After checking your message,
After checking your message, I checked your order.

• 끝인사 하기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about this issue.
Please call me back anytime.
If you need anything else, please let me know.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give me a call back.
Please feel free to call us if you have any suggestions.